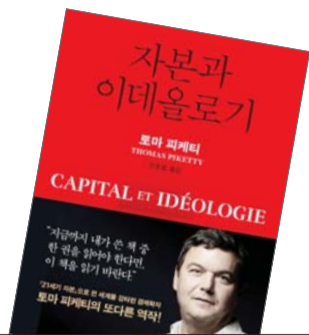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불평등의 기원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동역학을 분석한 책이다.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부상한 토마 피케티는 역사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통해 불평등의 기원을 추적해 나간다. 저자는 1차대전 발발 직전 최고조에 달했던 '벨에포크' 시기와 맞먹을 정도로 21세기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 지음/안준범 옮김/문학동네

한 방안으로 사회연방주의와 보편적 자본지원을 제안한다. 국경·이민·민족·종교 등 경계를 둘러싼 균열과 이로 인한 비극을 평등주의적 연대로 묶어낸 사회연방주의를 실현하고 재산세나 토지세 같은 사적 소유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누진소유세로 통합해 개별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 유럽 성인 평균자산의 60%에 달하는 누진소유세 12만 유로는 25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급해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사용한다. 불평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탐구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의 역사.

1300쪽. 3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책은 과거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다던 좌파 정당이 고학력자들(고소득자들)의 정당으로 바뀌어가고, 전통적인 상위 자산 보유자들의 정당인 보수 정당들이 사회토착주의를 통해 가난한 50%를 유인하게 되는 현재의 정당정치가 전 세계적 현상임을 증명해낸다. 학력·지식·인적자본의 축적을 지향하는 '브라만 좌파'와 화폐·금융자본을 끌어모으는데 몰두하는 '상인 우파', 두 진영은 교육 격차가 커지고 부가 대물림되는 현행 경제체제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보인다.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가 교대로 집권하는 다중엘리트 체계는 상위 1%를 결집시키는 연합의 틀로 세계를 지배해 나간다.

저자는 영구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

소방관의 선택

사브리나 코헨-해턴 지음/김희정 옮김/북하우스



터널에서 폭발물이 터져 수십 명의 민간인이 갇혔다. 소방대원을 추가로 투입하려는 순간 긴급 정보가 들어온다. "지금 당장 구조를 멈추세요! 터널 안에 폭발물이 하나 더 있어요" 터널 안에는 소방관 20명과 민간인 부상자 30여명이 있다. 영국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현직 여성 소방관이자 심리학자인 저자는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 감정이나 충격에 사로잡히지 않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방법을 알려준다. 396쪽. 1만6500원

풀의 향기

알랭 코르뱅 지음/이선민 옮김/돌베나무



초원을 달리거나 풀밭을 밟구는 어린아이가 느끼는 기쁨, 풀밭에서 식사를 마친 뒤 편하게 즐기는 한낮의 여유로움, 수풀 속 작은 세계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림, 묘지 위로 가지런히 자란 잔디가 주는 평온함 등. 책은 인간이 풀을 마주하며 알게 된 다채로운 감각들을 생생히 묘사해 낸다. 초록색 풀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잃어버린 감정들을 되살려준다. 풀이 불러일으킨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그려낸 푸른 산책. 288쪽. 1만6000원.

용기의 정치학

슬라보예 지젝 지음/박준형 옮김/이택광 감수/다산초당



새로운 극우 포퓰리즘부터 인종주의, 테러리즘의 득세, 시민 간 분열까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위협적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다. 인류는 존망의 기로에서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희망은 있다'는 안온한 분석을 내놓는다. 저자는 이러한 시대 의식이 조장한 '거짓 희망'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흐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변화로 이끌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444쪽. 2만2000원.

LGU+, 'U+클라우드 PC' 서비스 출시

노트북·폰 등 다양한 기기서 접속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에서 업무용 PC 환경을 손쉽게 구축하고, 근무에 활용할 수 있는 'U+클라우드PC' 서비스를 6월1일 출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U+클라우드PC는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가상 PC(이하 클라우드PC)를 제공한다. U+클라우드PC 웹사이트에 접속해 발급 받은 계정을 입력하면, 클라우드PC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근과

출장은 물론, 재택근무 등 업무 환경의 변화에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동일한 PC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U+클라우드PC는 문서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위해 클라우드PC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내·외부로 구분하는 '망 분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U+클라우드PC를 '서비스형'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초기구축 비용 부담을 없앴다. 중소기업에서는 계정당 월 3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클라우드PC를 이용할 것이다. /김나인 기자

뉴스 내용따라 표정 바뀌고 멘트 척척

앵커도 'AI·로봇'이 대신한다

'안녕하십니까. AI앵커 김현욱입니다.'

김현욱 앵커가 유튜브 '백브리핑 AI' 코너에 등장해 '페이스페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AI 앵커라고 하니 어딘지 어색한 부분이 있겠지 하는 생각에 결점을 찾게 되지만, 서두에 AI 앵커라고 소개하지 않았으면 모를 만큼, 눈을 깜빡인다거나 고개를 움직인다거나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이는 모습도 실제와 거의 흡사하다. AI 하면 휴대폰에서 AI 비서가 하듯 기계음으로 말할 것 같지만 이제는 실제 말하는 것으로 믿을 만큼 기술력이 크게 높아졌다.

AI에 딥러닝 활용해 영상 합성 발음, 발성 등 자연스럽게 구현 AI 쇼호스트·아이돌도 초읽기

방송에 AI 앵커가 등장해 스크립트를 읽는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신기한 모습이 아니다. AI 앵커는 물론 로봇까지 인터넷 뉴스, 인터넷 방송, 지역 방송은 물론 조만간 공중파의 재난방송에도 등장해 뉴스를 읽어주게 된다. 또 빠른 시일 안에 AI 쇼핑호스트도 등장할 전망이다.

이는 언택트(비대면) 현상으로 가상 인물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데다 AI 앵커가 실존 인물과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것으로, 사람이 운영하기 힘든 시간대를 AI가 앵커를 대체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포스타데일리는 AI 기업인 머니브레인인 손잡고 지난해 12월부터 '백브리핑 AI' 뉴스를 네이버TV,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클럽, 팟빵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머니브레인은 AI 기술을 적용해 뉴스 앵커와 똑같은 말투, 억양 등 목소리, 표정, 움직임까지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머니브레인 관계자는 "AI 앵커는 실제 앵커를 AI 모델로 완벽히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면 음성과 영상 합성을 통해 안정된 표정과 정확한 발음을 내고, 발성이 좋을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저녁 뉴스앵커로 활약한 '휴보'가 TJB 저녁 8시 뉴스앵커로 등장했다. /KAIST

록 고품질 AI 모델이 나오는데, 김 앵커는 안정된 표정, 발음, 발성을 가져 자연스러운 AI 앵커 구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머니브레인은 또 조만간 AI 앵커에 적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AI 쇼호스트와 AI 아이돌을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버는 29일 네이버 뉴스 기사 '본문 읽기' 서비스에 오상진 전 앵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앵커를 적용했다.뉴스 읽기 분야에 전문화된 목소리의 특성에 집중해 만들어진 합성음인 만큼, 실제 앵커가 기사를 전달하는 목소리 톤과 높낮이까지 구현했다.

특히 기존 클로바 AI 음성합성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본연의 목소리에 가까운 고품질 합성음을 만드는 HDT S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 뉴스 전달에 최적화된 음성을 합성했다. AI 앵커는 네이버 지도, 음성검색, 클로바 탑재 스마트스피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최근 KBS와 AI를 활용한 미디어 인프라 및 재난방송 시스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내에 재난방송에서 AI가 스크립트를 읽어주는 'AI 앵커'를 선보일 계획이다. KBS는 재난방송 주관사로 기상청의 재난정보를 받아 속보로 내보내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보니 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해 빠르고 정교하게 스크립트를 만들고 TTS(텍스트 투 스피치)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 스크립트를 KBS 앵커 목소리로 자동 변환해 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지난 14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지역 민방인 TJB 저녁 8시 뉴스앵커로 깜짝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휴보는 TJB 개국 25주년을 맞아 뉴스앵커로 등장해 2개의 리포트를 단독으로 소개했다. 특히 휴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바리스타·서빙·수술 로봇 등의 활약상과 국내 로봇 연구 현황을 소개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휴보' 앵커로 출연해 브리핑 중선 '3D AI 앵커' 등장하기도

또한 효소핑 방송 사업자는 AI 쇼호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 새벽 시간대에는 시청자가 적은 만큼 AI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생방송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영상·음성 합성 기술을 보유한 한 AI 기업도 AI 앵커의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보다 먼저 지난해 3월 AI 앵커를 선보인 중국 신화통신은 21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의 3D AI 앵커인 '신샤오웨이'를 선보였다. 신샤오웨이는 단정한 차림으로 걸어 나오며, 입꼬리를 올리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깜빡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스튜디오 앵커석에 앉아 멘트하거나 상황에 따라 헤어스타일과 의상이 바뀌며, 전하는 뉴스 내용에 따라 손동작과 표정이 달라진다.

/채운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SKT "언택트서비스 개발 유망기업 찾아요"

투자유치 등 지원... 5곳 내외 선발

SK텔레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기업 발굴에 나선다.

SK텔레콤은 글로벌 파트너 발굴 및 협력 프로그램인 TEAC을 통해 5G MEC 서비스·인프라 기술, 비대면 솔루션 개발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유망 기업을 6월1일부터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TEAC은 2016년 SK텔레콤, 페이스북, 인텔, 노키아 등 글로벌 ICT기업들이 차세대 통신 인프라 혁신을 위해 설

립한 글로벌 연합체 TI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영국,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SK텔레콤은 2017년부터 한국-미국-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TEAC 코리아'를 담당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공모에서 5G, 모바일엣지컴퓨팅(MEC), 비대면 솔루션에 강점을 가진 유망 기업을 발굴해 ▲상용망테스트 지원▲글로벌 사업 개발 ▲투자유치 연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4분기에 예정된 'TIP 서밋 2020'에 선발 기업들을 소개하고, TIP 주요 기업과 협업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선발 규모는 5개 기업 내외다. 공모를 원하는 기업은 SK텔레콤 개발자 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의 추천도 함께 받는다.

SK텔레콤은 TEAC을 통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6개 기업을 지원해왔다. 대표적으로 2018년 발굴한 광통신 솔루션 기업 '옵텔라'는 TEAC 프로그램 기간 중 광학 엔진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기술력을 인정 받아 미국 코세미 테크놀로지에 인수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